

‘포장 내용물 분석에도 이론 갖춰야’

(주)크라운제과 포장개발과 과장
포장기술사 박근실



다 른 산업분야도 마찬가지로 경우이지만 오늘날 포장 산업은 산업 전반에 걸친 고도 기술의 복합과 집적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포장산업 일선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에게도 같은 사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장기술에 대한 실무지식과 ‘포장 매니지먼트’ 능력을 요하는 최고의 자격시험으로 포장기술사라는 제도가 있다. 현재까지 이 자격을 얻은 사람이 일곱에 불과한데 김영호(포장기술연구소)·공재홍(포장산업)·김용진(한국알미늄)·이동열(미국 거주)·이명용(KIDP)·남병화 등 제씨와 올해 이 반열에 오른 (주)크라운제과의 박근실 과장이 그 면면들이다.

“포장분야 전반에 대한 실무 이해와 체계적 이론의 겸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포장고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고도의 전문기술에 대한 평가와 인정이라는 점에서 포장기술사 제도의 일정한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41회 기술사 시험을 통해 지난 8월 9일 포장기술사로 탄생한 박근실 과장(38)은 자격 취득 소회의 일단을 이렇게 피력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고급 전문기술정보 취급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박 과장은 서울산업대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과 해태제과를 거쳐 현재는 크라운제과에 몸담고 있다.

크라운제과의 포장관련 부서로 포장부 내에 포장개발과·지원과·구매과가 있는데 박 과장은 포장연구개발 및 설계,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는 포장개발과의 팀장으로 있다.

그동안에는 자신의 업무영역에서 크리에이티브를 크게 적용해볼 기회가 적었는데 크라운제과에 와서는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발휘, 각종 포장개선을 통해 연간 약 5억원 정도의 원가절감을 기했다고 한다. 3년간 원가절감에 몰두하다보니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후부터는 보다 워터 단계인 포장경량화, 생산라인의 고속화·합리화 등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최근에 박 과장은 동경국제포장전을 참관하고 돌아왔는데 알루미늄합지 포장라인에서 금속검출이 가능한 기기와 Easy peel 포장재를 관심있게 살펴보고, 회사 관련제품에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포장전반에 대한 이론적, 체계적 공부에 천착할 생각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식품의 경우 라이프사이클과 내용물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포장재를 우선 문제시해온 게 사실인데 포장담당자들은 포장 뿐만 아니라 내용물 자체에 대한 연구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식품공학 전공자다운 지적이었지만 한편으로 포장기술사다운 직업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박 과장은 KIDP의 위촉으로 중소기업체 포장지도를 통해 업계발전에도 일익을